

노인정책 '돌봄' 서 '능동적 복지'로 확대

광주시 민선7기 비전 제시 일자리 3만명으로 늘리고 고령층 편입 베이비붐 세대 '빛고을 50+ 일자리' 추진

광주시가 기존의 수동적 돌봄에 머물렀던 노인복지를 일자리 제공 등 '능동적 복지'로 전환한다. 더불어 일자리, 돌봄, 여가 지원 등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취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2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노인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수동적 돌봄' 위주에서 '능동적 복

지'로의 정책 프레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형, 공익형, 인력과 경험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1만5000여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에 연 3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에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빛고을 50+ 일자리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형, 시장형 일자리를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조기 퇴직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취업포털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노인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

하기로 했다. 일자리 마련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민간요양시설을 활용한 단기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담·교육, 정서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결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단기도 3000원으로 인상에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각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만들어 문제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시설도 확충한다. 마을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11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사업비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방·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노후 경로당의 지속적인 시설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문화 복합시설인 복지타운을 기존 동남권역(빛고을)과 북부권역(효령)에서 서부권역(서구, 광산구)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의 이용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노인회관도 상무지구에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철도공사 정비 기능장 대거 배출

나인호 과장 등 5명 동시 합격

광주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가 철도차량정비 기능장을 대거 배출했다. 공사는 2일 "제64회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시험 결과, 차량팀 나인호(46) 과장과 5명이 동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정비기능장은 안전한 철도 운행 및 성능향상을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으로 철도차량정비자격인증제 도입에 대비한 전문자격이다. 이처럼 공사에서 기능장이 단시간에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의 사내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기술인력 양성 노력 등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과장은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철도 차량의 정비 기술력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모아 동료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치며 격려해 준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세 체납 시민감시단' 본격 운영

변호판 영치·납부 안내 등 연말까지 활동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시민감시단',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와 납부 안내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은 총 37명으로, 각 자치구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6~9명을 선정한 후 사전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감시단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니어·청년

중심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11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체납액 730억원의 22.5%에 이른다. 시는 지난 8월말까지 1232대 영치해 5억5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협업포인트제 운영 부서간 소통 강화

광주시 북구가 협업을 통한 행정역량 결집으로 업무성과를 높이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조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다른 부서·직원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협업한 직원 간 감사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전달하는 제도다. 협업 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자동 배정받아 협업 상

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아울러 T/F팀 활동 및 사·구정 연구 모임 등 참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 규제 개혁·제도개선 과제 제출 등 업무 정보와 지식 공유 시에는 특별 협업 포인트도 부여된다. 북구는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협업포인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상 개선점을 파악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며, 월별로 협업 포인트 실적을 합산해 우수 부서 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문서24' 시행

광주시 서구는 2일 "민원인의 번거로운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기업·단체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를 이용해 문서를 보내거나 회신을 받았지만 이제는 '문서24'를 이용해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문서24 홈페이지(www.open.gdoc.go.kr)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문서작성을 클릭한 후 공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시 '9월의 공무원' 황정미 주무관

광주시는 '9월의 공무원'으로 광주시청 구내식당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황정미 주무관을 선정해 1일 10월 정례회에서 시상했다. <사진> 황 주무관은 '어머니 손맛'으로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품격 양질의 식단운영으로 공직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4년간 평균 만족도가 92.4점에 달한다. 또 매주 2-3회 시장조사를 하면서 품질, 신선도, 가격, 생산지 등을 비교 분석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선정하

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음식 재능 기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회에서 "황 씨씨는 지난 14년 동안 음식에 과학기술을 더하고 의학적 지식을 합해 직원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한 분으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위생을 기본으로 실천했다"고 치하했다. 황 주무관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내 몸이 건강해야 남도 돌 볼 수 있다"며 "이 상은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 함께 고생하신 조리사, 9명의 조리원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초중고 69개교 가을 수학여행 안전대진단

유관기관 합동 내달 30일까지

광주시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가을 수학여행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대진단은 차량, 숙박시설, 위생, 보행, 안전수칙 숙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수학여행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초등학교 4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4개 등 총 69개이며, 학생 수는 1만2000여 명이다. 여행지는 전남 19곳, 전북 14곳, 경기도 14곳, 제주도 9곳, 충남 8곳, 서울 6곳 등

총 88곳으로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다. 먼저, 광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체 대형버스 280여 대를 대상으로 ▲브레이크 동작 ▲타이어 마모 ▲방향지시등 점등 등 차량상태를 점검한다. 수학여행 당일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참여해 가운데 ▲사전점검을 받은 차량과 동일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비상탈출망치와 소화기 비치 등을 확인한다. 시는 교사에게는 숙박안전, 화재예방, 교통안전, 산행활동, 음식점 위생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는 그림으로 구성된 안전사고 예방수칙 전단지 제작해 수학여행 당일 배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구직 신청 하세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려

광주시는 오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구직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3일까지 실시한다.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https://gj.jobfairs.co.kr)에서 받는다. 사전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한 구직자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면접은 구인기업의 경우 원하는 인재를 미리 등록하고, 구직자는 성향·역량검사 및 구술면접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

라인 면접을 거쳐 원하는 기업을 찾는 구직자는 23일 박람회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와 면접을 보게 된다.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재)광주광역시경제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은행, 금호타이어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대학생 등 구직자 4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집매칭시스템을 선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